

제11권 2호

2021. 1. 18~2021. 1. 31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2021년 산업환경의 명(明)과 암(暗)                            |
| 이슈분석    | 플랫폼사의 '사실상 중개행위' 규율 필요성                           |
| 금융경영브리프 | 언택트시대, 비스포크 전략의 부상<br>금융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개 의무 확산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는 시기상조<br>외 환: 현실화된 블루웨이브와 달러화 향방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연구위원 윤병수(hybs)  
연구원 김효섭(hyosupk)

####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예미(hmikim)

####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황선경(skyhwang)  
수석연구원 이령화(ryoung.h)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 01 | 논단      | 2021년 산업환경의 명(明)과 암(暗)                            |
| 04 | 이슈분석    | 플랫폼사의 '사실상 중개행위' 규율 필요성                           |
| 08 | 금융경영브리프 | 언택트시대, 비스포크 전략의 부상<br>금융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개 의무 확산     |
| 12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는 시기상조<br>외 환: 현실화된 블루웨이브와 달러화 향방 |
| 16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2021년 산업환경의 명(明)과 암(暗)\*

김 영 준 연구위원(kimekono@hanafn.com)

작년 산업계는 미중유의 코로나19 쇼크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다행히 올해 산업계 업황은 정부투자 확대와 백신개발, 그리고 주요국 경기회복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정보서비스 등 IT산업이 성장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정국에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T산업과 전통산업,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 대기업과 영세업자간의 실적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 연장을 둘러싼 혼란도 우려된다. 업종별/계층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올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코로나19로 락다운과 불황을 경험한 2020년

여러가지 면에서 2020년은 역대급으로 기억될 것이다. 연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어 지구촌을 덮쳤으며, 이후 전인 미답의 경제봉쇄(락다운) 조치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2007년 금융위기가 주로 수출 제조업에 충격을 줬던 반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기업에게 가리지 않고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더욱 힘들었던 한해가 되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업의 성장성에 큰 타격을 가했다. 실제로 외감기업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1% 급감했으며, 3/4분기(-3.2%)에도 감소폭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매출 축소가 이어졌다. 다만 기업 수익성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었다. 대표적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코로나19 이전 보다 오히려 상승했는데, 이는 기업이 긴축경영, 대체시장 발굴, 비대면 마케팅 강화 등의 적극적인 자구책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1/5 가량이 코로나 장기화에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중유의  
코로나19 쇼크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 매출액  
큰 폭 축소

### :: 2021년 기업환경은 정부투자와 주요국 회복으로 개선될 전망

다행히 2021년 기업환경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4차산업 관련 투자가 계속되고, 백신개발로 주요국의 봉쇄조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IT 산업과 화학, 철강, 소매유통 등의 실적개선이 예상

치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경제가 동반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지난해 역성장을 경험한 한국경제가 올해에는 3% 내외의 GDP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후로 시장이 본격 성장중인 반도체, 2차전지, 정보서비스 등 IT산업과 지난해 부진을 겪었지만 올해 국내외 경기회복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화학, 철강, 소매유통 등의 실적개선이 예상된다.

실제로 FnGuide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1,858조원에서 올해 2,017조원으로 8.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7조원에서 179조원으로 41.0% 급증하는 등 기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상승한 것은 풍부한 유동성 이외에도 이와 같이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 ∴ IT와 전통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실적 차별화 심화

코로나19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야기

그러나 올해 기업의 앞날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난해 9월 워싱턴 포스트紙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IT기업과 전통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온라인 유통 등 언택트 수혜가 예상되는 IT업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적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전통 제조업의 올해 생산규모가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 위주 제조업과 내수 위주 서비스업의 회복세도 차별화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회복세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위주의 제조업은 해외부문의 수요회복에 힘입어 실적이 회복되는 반면, 도소매, 운수, 음식점업 등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은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삭풍을 맞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연말연초 대목에도 한가한 상점가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도 규모별로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온라인 진출과 신제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하고 뚜렷한 비교우위를 보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와 같은 흐름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 ❖ 대출 원리금 유예 종료가 다가오는 것도 리스크 요인

코로나 지원금과 대출 원리금 유예 종료가 3월말로 다가오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에 제공한 유동성 지원 금액은 277조원에 달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으로 지원해 준 금액도 126조원 수준이다.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아지면서 연체율이 0.42%(10월)로 전년동월대비 0.18%p 하락했으며, 작년 11월까지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도 809개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개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유동성 지원에 의한 착시 현상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동성 지원이 없었을 경우 지난해 기업 연체율은 0.93%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유동성 부족금액은 7.7조원, 유동성 부족 기업수 비중도 7.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동성 부족은 업종별로 항공, 석유화학, 도소매 등에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유동성 지원이 끊길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한계 기업들은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 ❖ 기업환경 개선 예상되지만 기업은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어

코로나19의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의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는 힘들다. 금융당국도 관련 프로그램의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물경제 회복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제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부실기업을 양산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과 주요국의 경기 동반회복 등으로 올해 기업환경은 지난해 보다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정유, 항공, 오프라인 유통 등의 산업 재편 가능성도 높다. 소상공인의 자금사정도 위태롭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서 뒤쳐질 경우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喜劇)’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悲劇)’이 올해 국내 산업계가 처한 현실이다. 

---

3월말 대출 원리금  
상황 유예  
종료 예정

---

유동성 지원이 끊길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내몰릴 가능성

---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 플랫폼사의 '사실상 중개행위' 규율 필요성

김혜미 연구위원(hmikim@hanafn.com)

디지털기술 발달로 인해 플랫폼사가 주요 상품판매채널로 부상이 예상됨에 따라 플랫폼사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정보, 권유, 추천, 중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고객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광고로서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금융상품중개업을 도입하여 플랫폼의 사실상 중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 ■ 디지털기술 발달로 고객접점을 보유한 플랫폼이 주요 상품판매채널로 부상할 전망

- 디지털 기술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커머스와 금융업에서 전환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검색엔진,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기업들은 커머스를 강화해가는 동시에 금융서비스로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플랫폼기업의 금융업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향후에는 강력한 고객기반과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사가 주요한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부상할 전망
  - 바젤위원회 산하 은행감독위원회는 디지털화 진전과 플랫폼 기업(빅테크, 핀테크 등) 등장으로 은행의 상품 '제조'와 '판매'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을 제기<sup>1)</sup>
  - 향후에도 은행이 고객 접점을 보유할 수 있으나 기존 은행들은 상품만 제조하고 판매는 고객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기업이 수행할 가능성도 존재
-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미래에는 플랫폼기업이 금융상품 판매기능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수행할 가능성이 유력하며, 리테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 이미 국내에서도 플랫폼사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

- 국내 플랫폼사는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중개 등의 판매행위를 이미 수행 중
  -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들을 제시
  - 금융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정보를 획득하고, 구입을 원할 경우 플랫폼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혹은 금융사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상품을 구입

[1] "Sound Practice : Implication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 BIS BCBS, 2017

- 대출심사, 보험심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로서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도 플랫폼사가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가 가능해짐

■ 국내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율체계가 부족하여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

- 현재 플랫폼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정보제공, 권유, 추천, 중개 행위 등의 법적 성격이 ‘광고’인지 ‘중개’인지가 모호
  - 플랫폼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한 후 소비자가 금융회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하더라도 현행법상 ‘광고’로 분류
- 광고로 분류될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플랫폼사는 현행법상 법적 책임이 없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플랫폼회사를 통해 투자자들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광고’였기 때문에 플랫폼사의 법적 책임은 없었음
- 또한, 광고에서는 금융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들은 해당상품이 플랫폼사에서 제조·직접판매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존재

■ 주요국은 플랫폼사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OECD는 각 국의 금융당국이 디지털 환경 하에서 새롭게 출현한 금융상품 판매모델 (distribution model)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

■ 미래 은행의 시나리오 :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 기능을 누가 수행하게 되는가

	제조	판매	내용
1 개선된 은행 (Better Bank)	디지털화로 개선된 기존 은행		기존은행이 디지털화와 핀테크 기술로 개선되어 은행이 계속해서 우위 유지
2 새로운 은행 (New Bank)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은행		기존 은행들은 퇴화하고 새로운 은행(챌린저은행)으로 대체
3 은행과 신규 진입자간 분업 (Distributed Bank)	기존은행 핀테크 빅테크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존은행과 핀테크, 빅테크기업간 상호 분업 → 분업, 협업 등의 행태
4 기존 은행의 격하 (Relegated Bank)	기존은행 핀테크 빅테크	핀테크/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은행은 고객과의 관계 약화 빅테크, 핀테크가 채널 역할 수행
5 은행의 소멸 (Disintermediated bank)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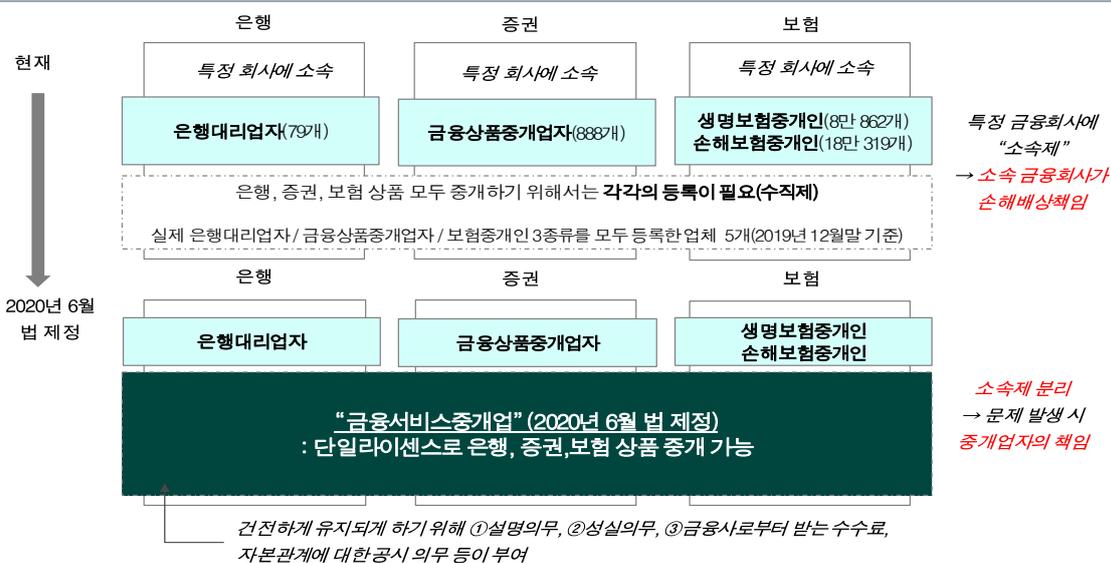
자료 : BCBS(2017)

- 혁신이 가져올 혜택과 금융소비자 보호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새롭게 등장한 금융비즈니스와 판매모델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
- 영국, 일본 등에서는 플랫폼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중

■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을 도입, 플랫폼사의 ‘사실상 중개행위’를 규율할 예정

- 일본 금융당국은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중개행위가 확대되는 환경에 대비하여 '18년부터 제도 마련을 검토, '20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신설
  - 고령화가 진전되고 자산, 소득, 취업, 건강 세대 구성 등 개별 상황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여러 업종, 다수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의 중개 라이선스가 존재하나, 금융서비스중개업은 단일 라이선스로 여러 업종의 금융상품 중개가 가능
- 금융서비스중개업은 특정 회사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이익을 위해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소속제를 분리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
  - 기존 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된 수직적 관계를 상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속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구조
  - 반면, 금융서비스중개업은 여러 업종,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 중개를 담당하는 만큼 소속제를 분리하는 대신 법적 책임 및 의무(①설명 의무 ②성실 의무 ③수수료 및 계약관계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폭 강화
- 일본 금융당국은 플랫폼사가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금융서비스중개업자로 분류하여 규율할 예정

■ 일본,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자료 : 일본 금융청(2019)

## ■ 영국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플랫폼의 ‘사실상 중개행위’ 규율 중

- 영국에서는 경쟁시장당국(CMA)이 금융상품비교플랫폼을 관할하고 소비자보호 준칙인 CPR(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 2008)을 적용
  - 소비자보호준칙(CPR)에서는 금융상품비교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
- 대출·보험비교플랫폼에 대해 금융감독청(FCA)도 규제권한이 있으며, 특히 대출 비교플랫폼의 연결 행위는 신용중개업으로 간주하고 신용중개업 인가를 요구
  - 대출·보험비교플랫폼에는 FCA영업원칙 준수의무, 즉 ①소비자의 이해와 연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②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고 ③소비자와의 정보제공에 있어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
  - 대출비교플랫폼에 대해서는 특정인과의 상업적인 관계에 의해서 대출상품의 순위나 배치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상품의 중립적 계시의무를 부과

## ■ 금융당국은 국내 플랫폼사의 사실상 중개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규정할 필요

- 기술혁신 및 디지털화 진전으로 향후에는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행위가 일반화될 수 있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 플랫폼사가 정보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중개행위를 ‘광고’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
  - 플랫폼사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단순히 광고로만 보기는 어려움
  - 광고 수수료 책정이 정액이 아닌 모집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광고 성격보다는 중개 성격에 가까움
- 현행법상 중개는 계약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는 행위로 보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사에 대해서는 중개행위를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 금소법에 플랫폼의 사실상 중개행위를 반영,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중개업 도입이 필요

- 금소법 규율대상에 플랫폼사의 ‘중개행위’를 포함시키고, 금융상품 중개 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
  - 대출플랫폼, 보험중개플랫폼 등은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에 해당되나, 현행법상 광고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추천 등은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님
-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중개하는 금융상품중개업을 도입, 플랫폼사의 중개행위를 중개업으로 규율할 필요 

## 언택트시대, 비스포크 전략의 부상

황 선 경 수석연구원(skhwang@hanafn.com)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경험의 ‘human’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경험의 편리함과 단순함이 해결하지 못하는 물리적 경험과 감성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혹은 물리적 경험 한 가지만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도 피지털(Physical+Digital) 기반의 비스포크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미있는 경험 제공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 딜로이트, 2021년 12대 기술트렌드 중 하나로 비스포크(Bespoke)를 언급<sup>[1]</sup>

- 비스포크란 개인의 주문에 따라 맞춤 생산한다는 뜻으로, 대량 맞춤(mass customization)을 넘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
  - 과거에는 주로 정장이나 고급차와 같이 고가의 제품에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서비스의 대중화가 가능
- 언택트 시대, 디지털 경험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험의 한계점을 보완한 피지털(Physital) 기반의 비스포크 서비스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
  - 미국의 온라인 매트리스 전문업체 Casper는 디지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여개의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예약시 낮잠을 잘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 ■ 해외 금융사들은 고객 여정에 비스포크 전략을 적용하며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 **(Natwest)** 금융거래시 추가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스포크 서비스 ‘Banking My Way’를 출시
  - 취약계층을 포함한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 은행 내에 공유하여 응대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1년 단위로 상황의 개선 여부를 확인
- **(Umpqua bank)** banking앱에서 고객이 직접 직원의 프로필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Umpqua Go-To’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을 느낄 수 있게 함
  - 고객이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조회하여 원하는 직원을 전담 상담원으로 선택하면, 스마트폰의 음성, 화상,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가능

[1] "Bespoke for billions", Deloitte,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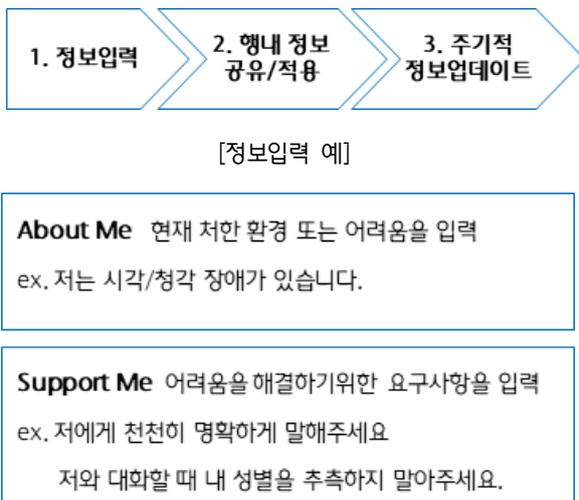
■ 비스포크 서비스 구축의 핵심은 AI와 데이터이며 5가지 테크툴(tool)의 결합으로 구현

- AI와 데이터는 비스포크 서비스 구축의 핵심이며, 비스포크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코딩능력을 겸비한 상품/서비스 디자이너가 필요
  - 단, AI와 데이터는 구현 방식에 따라 신뢰를 구축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은 윤리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설계
- 음니채널 마케팅 플랫폼, 휴대용 플랫폼 장치, 감성컴퓨팅, 공간 웹, 차세대 신원확인 체계의 결합으로 보다 정교한 비스포크 서비스를 구현
  - 플랫폼을 확장/강화하고 감정인식, 증강현실 등 차세대 고객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5가지 단일 기술의 사용보다 결합 활용이 보다 효과적

■ 국내 금융회사들도 피지털 기반의 기술혁신으로 비스포크 고객경험을 제공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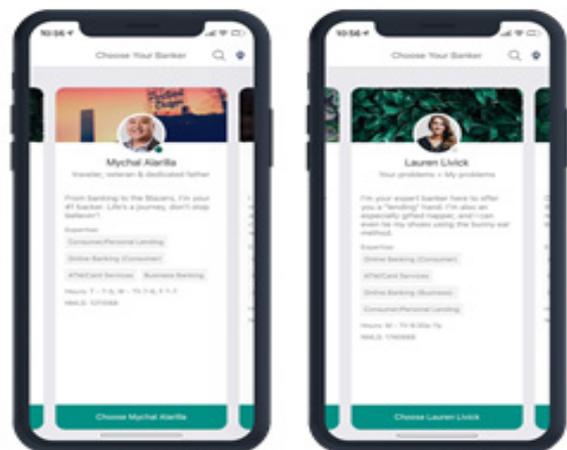
- 디지털 혹은 물리적 경험 한 가지만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과 피지컬 경험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여 고객경험을 개선
  - 개별 고객의 여정별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찾아 공감하고 해소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피지털 기반의 비스포크 경험을 구현
- 기존 플랫폼에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비스포크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세분화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 제공
  -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고객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고객이 가장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 NatWest, 'Banking My Way' 서비스 절차



자료 : NatWestGroup 홈페이지

■ Umpqua, Go-To 서비스



자료 : Umpqua 홈페이지

## 금융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개 의무 확산

이 령 화 수석연구원(ryoung.h@hanafn.com)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녹색상품을 출시하고,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는 등 ESG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G20에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를 진행하고 표준화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각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최근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 영국, EU, 홍콩, 일본 등에서 정보공개 의무화를 결정했으며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ESG 트렌드에 발맞춰 정보공개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해외은행들, 녹색상품 출시 및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결정 등 ESG 분야에 적극 참여

- 석유화학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로 인해 간접적으로 온난화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은 영국 은행들이 '21년 녹색상품(green product) 출시 계획 표명<sup>11</sup>
  -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절약 저축상품'을 출시할 예정
  - 에너지 효율 기업에 이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그린모기지(green mortgage)' 상품을 출시하고, 대출 희망 기업에 '탄소배출 제한(carbon limit)'을 제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며, 자동차금융의 경우에도 전기차에 집중할 계획
- 독일 Deutsche Bank는 '25년까지 지속가능금융에 약 2,0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여갈 예정<sup>12</sup>
- BNP Paribas AM은 신규 발행('20.12)한 인프라 대출 펀드(infrastructure debt funds)에 ESG 정책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환경 기여도 등을 평가할 계획<sup>13</sup>

### ■ G20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를 진행하고, '17년 표준화된 권고안을 제시

- '15년 G20의 제안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대책반(TF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이 발족
- '17년 제시된 권고안에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통한 표준화된 정보 공시가 주요 내용
  - TCFD의 권고안에는 4개의 핵심요소와 11개의 공시 권고 항목이 포함

[1] "UK banks to launch wave of green products", Financial Times, 2021.1

[2] "Deutsche Bank to link management pay to sustainability targets", Reuters, 2020.12

[3] "BNP Paribas AM launches two infrastructure debt funds", citywire selector, 2020.12

■ 주요국은 TCFD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ESG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 영국 금융청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sup>4</sup>에 대해 TCFD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연간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의무화 방안을 마련('20.12)<sup>5</sup>
  - '21.1월부터 일부 상장회사·은행·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작해 '25년 완료 예정
- EU는 '15.9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고 '19.12월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발표<sup>6</sup>
  - 해당 규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자문기관에 웹사이트, 안내서, 공시 보고서 등을 통해 ESG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
- 일본은 '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TCFD의 권고안을 비롯한 국제 가이드를 바탕으로 ESG 경영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계획
- 홍콩은 지속가능금융 중심 지역을 목표로 금융기관 및 상장기업에 대해 '25년까지 TCFD의 권고안에 맞춰 ESG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

■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관련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에 대비할 필요

- 국내에서도 기업 대출 및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등 금융회사 내 ESG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위도 ESG 정보공개 확대 방침 피력
- 한편, SFDR 적용으로 유럽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에서 한국 기업에 ESG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어서 향후 ESG 정보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금융기관 및 상장기업들도 관련 정보공개에 대비할 필요 

■ TCFD의 정보공개 권고안 핵심요소

핵심요소 (4개 영역)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경영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영향력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측정기준 및 목표	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 및 감축 목표

자료 : TCFD, 자본시장연구원

■ SFDR의 주요 3가지 요소

Sustainability risk ("financial materiality")	투자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포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
Principal Adverse Impacts ("Investment footprint")	자산운용 시 지속가능요소와 관련된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을 설명할 의무 부여
ESG Approach ("avoid greenwashing")	ESG를 거짓으로 표방(greenwashing)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SG 접근법을 투자자에게 공개

자료 : EY

[4] premium listings 기업에 한정. 해당 기업 수는 '20년 기준 480개(전체 1,140개)이며, 자본총액은 2.3조 파운드로 전체 상장기업 자본총액의 60%에 해당(자본시장연구원)

[5] "FAC introduces rule mandating climate-related disclosures", Finextra, 2020.12

[6] "New ESG Requirements Impacting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JDSupra, 2020.12

##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는 시기상조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블루웨이브 현실화와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졌다. 이에 일부 연준 인사들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연준 내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의견 균열이 관측되었다. 금통위에서는 가파른 주가 상승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지만, 총재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완화기조 지속을 강조했다. 국내는 글로벌 채권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미 금리 상승 전개시 국내도 동조화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블루웨이브 현실화,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 속 글로벌 금리 상승

- 12월 미국 취업자수가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20.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고 지난 FOMC 의사록에서는 영구적 실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
- 블루웨이브 현실화와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미국 BEI, 2%대 진입)
  - 다만, 美 12월 근원 CPI는 0.1%(MoM)에 그치며 제한적 물가 상승압력 암시
- 파월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너무 이른 출구전략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면 서 테이퍼링 시점이 오면 충분히 이른 시간에 시장에 알릴 것임을 강조
- 美 국채 10년 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규모 부양책 발표와 일부 연준 인사의 조기 테이퍼링 언급으로 단기 급등해 1.1%대 진입('20년말 0.92%)

### ■ 글로벌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기관 매수세 유입으로 금리 상승폭 제한

- 국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은 서비스업 위축으로 크게 감소(12월 실업률 SNA 4.6%, '10.1월 이후 최고)하며 고용 없는 경기 회복 가능성 암시
  - 12월 수출은 12.6% 증가(YoY)했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도 역대 6번째 높은 실적치
- 국고 금리는 현선물 차익거래 확대,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미국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제한(국고 3/10년 금리(%): '20년말 0.98/1.71 → 1.14일 0.99/1.73)
- 회사채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자금집행 재개 속에 수요예측이 호조를 보이고 유통시장에서도 채권 매수 수요가 부각되며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세 지속
  - GS의 경우 발행물량 10배 이상의 자금이 몰려 5년물은 민평 대비 -30bp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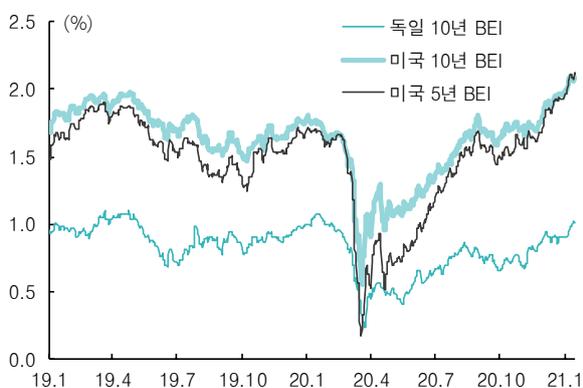
■ 금통위,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높아졌으나 신중한 통화정책 조정을 시사

- 1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0.50%)했으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 한층 유의할 것임을 시사
  -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을 주시하겠다는 문구 추가
- 경기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와 서비스업황이 부진함에 따라 경기회복은 코로나 전개와 백신 보급이 좌우할 것이라 진단
- 또한 한은 총재는 자산시장 버블 여부에 대해 사전적 판단은 어렵지만 가파른 주가 상승과 레버리지에 기반한 과도한 투자를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언급
- 다만 경기 상황을 볼 때, 코로나 대응책 회수나 정책 기조 전환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기회복에 기반한 완화적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
  - 채권매입과 관련해서는 경기와 물가 회복 전망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보다는 수급 불안이 부각되면 단순매입 등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언급

■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과 1월 FOMC를 주시하며 대외발 금리 상승압력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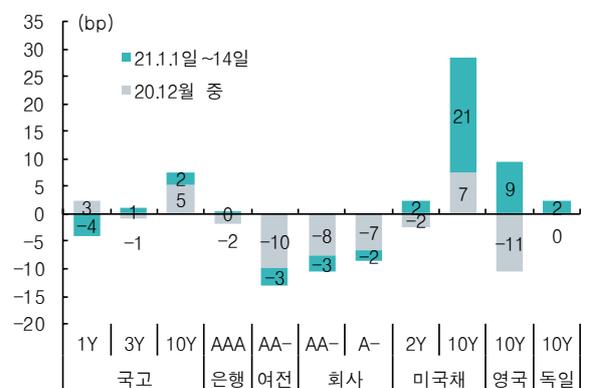
- 미국 금리의 단기 급등과 블루웨이브 현실화 등의 환경 변화 속에 1월 FOMC에서 장기채 매입 비중 확대 논의와 물가 관련 포워드가이던스 강화 여부를 주시
- 또한 일부 연준 인사들의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으나 통화정책 운용 무게중심이 고용안정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 물가 상승에 기반한 정책 기조 전환은 시기상조
- 대외금리 상승에도 국내 채권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정정책에 기반한 추가적인 미국 금리 급등시 국내도 동조화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90%~1.10%, 1.65%~1.85% 범위로 전망 

■ 미국과 독일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BEI)



자료 : Bloomberg

■ 주요 채권 금리 등락폭(1.14일 기준)



주 : 은행채, 회사채, 여전채는 3년물 기준

자료 : Bondweb

## 외환: 현실화된 블루웨이브와 달러화 향방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美상원 투표 결과 Blue-wave가 확정되었으나, 글로벌 외환시장은 작년말 과도하게 나타났던 '바이든 트레이드(달러 약세&EM-Asia통화 강세)'가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 역시 작년말 1,080원을 하회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1,100원대 가까이 반등하였다. 당분간 달러화는 바이든 부양책이 현실화되며 '기대'와 '실제'간의 눈높이를 맞추는 방향성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대내 복잡한 수급 여건 속에 1,090원대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 ■ (원/달러 환율) 달러화 반등 및 낙폭 과대 인식 속 1,090원대로 반등

-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랠리 속에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美상원 결선투표에서 Blue-wave기대감이 높아지며 1,080원대 초반으로 하락
- 그러나 Blue-wave 확정 및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 속도조절과 달러화 반등, 역외 숏커버 물량 유입으로 1,090원대로 반등
- 한편, 외환거래 동향은 '20.4Q 기업이 선물환 \$58억 순매수(QoQ +\$73) 하여 외환 매수 포지션 확대 기초를 지속, 외국인은 역외 NDF에서 \$50.2억 순매도(전분기 \$35.8억)를 보이며 원화 매수 포지션을 확대하는 흐름을 지속

### ■ (국제 환율) Blue-wave 확정 후 美국채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

- 달러인덱스는 Georgia州 상원투표를 앞두고 '18년 4월 이후 최저치(89.4pt)로 하락하였으나 美국채 금리 상승 및 양호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90pt대로 반등
  - 1.5일 Georgia州 상원의원 결선투표 2석 모두 민주당이 획득하며 상원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확정(민주당 50석+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50석)
  - 美국채 10년물 금리는 부양책 기대 및 테이퍼링 가능성 발언으로 1%대로 급등
- 유로화는 노딜리스크 소멸에 따른 파운드화 절상 영향으로 강세를 이어가는듯 하였으나 ECB의 유로화가치 평가절상에 대한 경계 발언 및 달러화 강세로 반락
- 위안화는 위험선호 심리, Blue-wave 기대감, 양호한 경제지표로 달러당 6.4위안을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강세속도 경계 속에 추가 하락 제한
  - 한편 中외환당국은 1.1일부터 위안화 바스켓에서 달러화 비중을 21.6%에서 18.8%로 2년 연속 줄인 반면, 유로화 비중을 17.4%에서 18.2%로 상향 조정

■ Blue-wave 현실화 및 바이든 부양책은 중장기 강달러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작년 말 달러화는 바이든 정책 기대(재정지출 확대, 무역분쟁 완화 등)에 따라 가파른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Blue-wave 확정 후 오히려 달러화가 강세를 시현
  - 달러화 강세 배경에는 ①부양책 추진력 강화가 미국의 성장모멘텀을 다시 부각시킬 것이라는 인식 ②이에 따른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③채권 발행 증가 부담 ④최근 과도했던 달러 숏포지션에 대한 되감기(Unwinding)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 1.14일 발표한 \$1.9조 규모의 바이든 부양책(ARP)은 의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채 금리 상승 및 달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American Rescue Plan: 1인당 \$2,000 현금지급, 최저임금 \$7.5→\$15로 인상 등
- 다만, 미국 일변도의 성장보다는 글로벌 동반 성장이 나타나고, 테이퍼링 역시 아직 이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달러보다 약달러 압력이 우위를 보일 전망
  - 1.14일 美연준 파월의장은 출구전략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테이퍼링 우려를 일축

■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른 방향성 탐색 속에 1,09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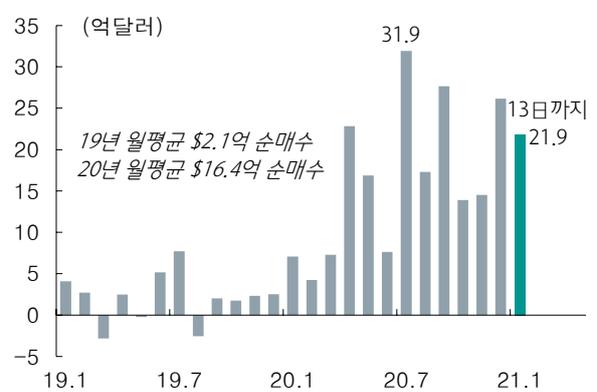
- 부양책 불확실성 해소 및 온건한 파월의장의 발언 등으로 강달러 흐름은 진정되었으나, 원/달러 환율은 수급 요인 혼재 속 1,09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 선박수주 관련 매물 출회 및 연기금 대체투자 재개 등 상하방 수급요인 혼재
- 연초 외환포지션은 외국인의 국내 자산 매수세가 주춤한 반면, 내국인들의 외화자산 매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수급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13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각각 4,700억원, 1.8조원 순매도, 내국인은 거주자외화예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개인은 해외주식을 약 \$21억 순매수 

■ 美-獨 실질금리차와 달러인덱스



자료 : Bloomberg

■ 개인 해외주식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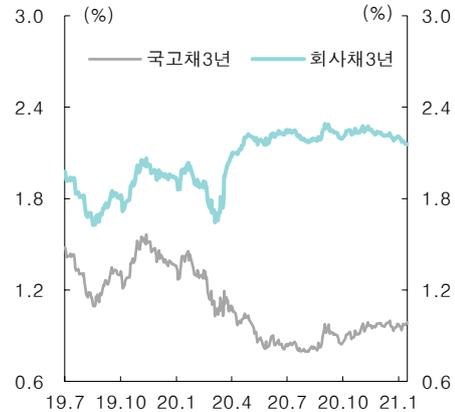


자료 : SEIBRO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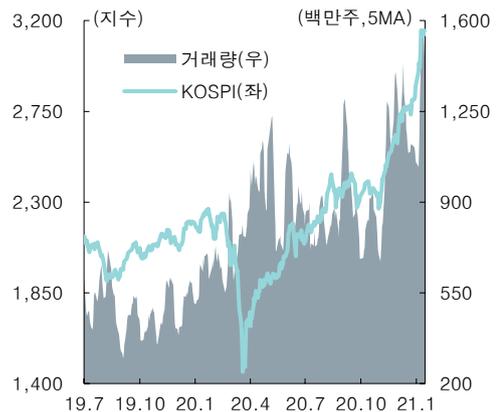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01월 08일	0.48	0.66	0.83	2.18	0.98	1.33
01월 11일	0.51	0.66	0.81	2.16	0.97	1.30
01월 12일	0.48	0.66	0.81	2.16	0.98	1.32
01월 13일	0.49	0.67	0.81	2.16	0.98	1.31
01월 14일	0.49	0.67	0.81	2.16	0.99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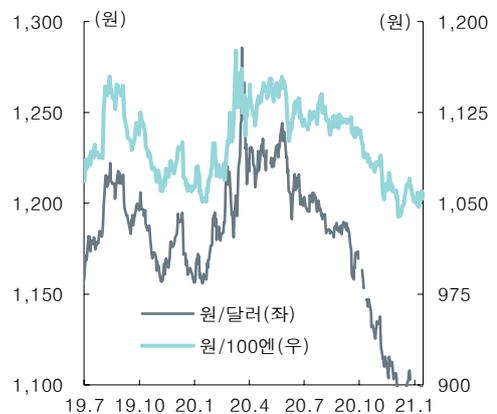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01월 08일	3,152.2	409,095	1,298	16,479
01월 11일	3,148.5	444,338	1,713	-7,259
01월 12일	3,126.0	314,074	1,391	-6,284
01월 13일	3,148.3	247,256	1,578	1,886
01월 14일	3,149.9	241,230	1,233	6,719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01월 08일	1,089.8	1,048.5	168.3	1,332.4
01월 11일	1,097.3	1,053.3	169.3	1,333.3
01월 12일	1,099.9	1,060.2	170.1	1,342.5
01월 13일	1,095.1	1,054.2	169.3	1,331.2
01월 14일	1,098.0	1,058.4	169.6	1,3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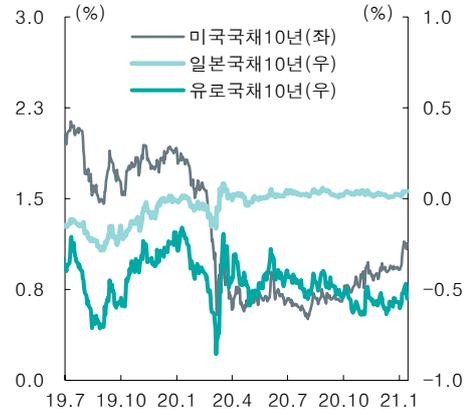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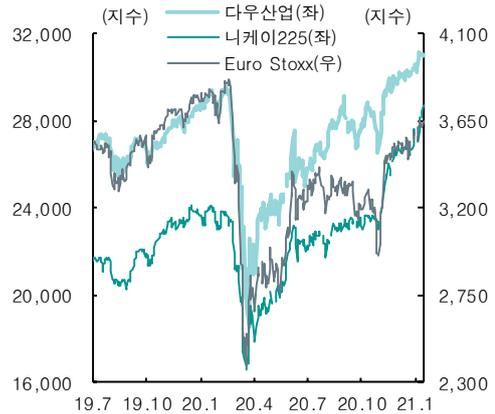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01월 08일	0.09	0.22	0.13	1.12	0.04	-0.52
01월 11일	0.09	0.22	0.14	1.15	0.04	-0.50
01월 12일	0.09	0.23	0.14	1.13	0.04	-0.47
01월 13일	0.09	0.24	0.14	1.08	0.04	-0.52
01월 14일	0.09	0.23	0.14	1.13	0.04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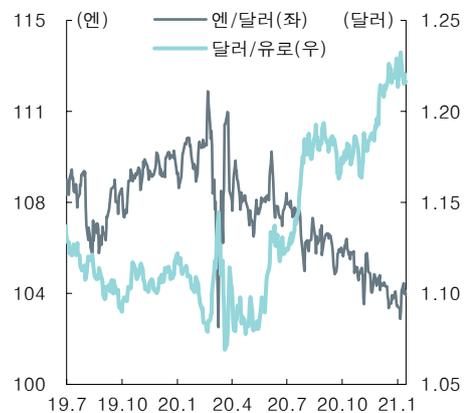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01월 08일	31,098.0	28,139.0	3,570.1	3,645.1
01월 11일	31,008.7	-	3,531.5	3,620.6
01월 12일	31,068.7	28,164.3	3,608.3	3,612.1
01월 13일	31,060.5	28,456.6	3,598.7	3,616.5
01월 14일	30,991.5	28,698.3	3,565.9	3,641.4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01월 08일	103.94	1.223	54.6	1,835.4
01월 11일	104.17	1.215	55.3	1,850.8
01월 12일	103.74	1.221	55.7	1,844.2
01월 13일	103.88	1.216	56.4	1,854.9
01월 14일	103.70	1.216	55.7	1,851.4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1월 16일 인쇄

2021년 1월 18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윤병수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